

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적립하여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안정화에 활용합니다

- 미래대응기금 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이며,
국회 통제 하에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-

< 보도내용 >

□ 2026.9.11.(금) 동아일보 「재정학회장 “미래기금 사업 140개, 성과관리는 0개”」
제하의 기사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

- ①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는 이유는 미래대응기금
적립금 때문으로, 세수가 늘었는데도 빚을 내 여유자금을 쌓는 구조이고,
- ② 연구개발(R&D)·인프라 등 자본 형성과 교육·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에
해당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 지출의 약 42%에 불과하고, 새 투자를 늘리기
보다 기존 사업의 재원을 신설 기금으로 바꿔 담은 사업도 상당하며,
- ③ 기획예산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미래대응기금의 140개 세부 사업이 모두
‘성과관리 비대상’으로 분류되어 “성과 책임 주체가 비어있다”는 지적이 있고,
- ④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% 범위에서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여
사실상 상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과 같다는
등의 비판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【 ① 미래대응기금은 빚을 내 여유자금을 쌓는 구조가 아닙니다. 】

□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
활용하고 필요시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 10년 내국세
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를 적립하는 구조입니다.

○ 특히 전년대비 200조원 이상 증가한 총수입을 모두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모두 국채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,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.

- 호황기 증가한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였다가 불황기 세수 둔화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여력을 보강한다면 재정을 기존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○ 또한 미래대응기금 적립금은 국채이자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함으로써, 국가 자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□ 한편 '27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총지출 증가(12.8%)에도 불구하고, 기존 중기계획 대비 국가채무를 12조원 이상 감축*했으며,

* '27년 국가채무: ('25~29 중기재정운용계획) 1,532.5조원 → ('27 예산안) 1,519.8조원

○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중 12.5조원을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병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.

* (Moody's, 9.3)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것은 정부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에 긍정적(Credit supportive)

【 ② 미래대응기금에서는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. 】

□ 미래대응기금은 청년, 성장엔진, 지방, 교육·인재 4대 분야에서 NEXT 원칙*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·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* ① (N: New-Capital) 인적·물적 자본형성에 투자하는 사업
② (E: Enterprising)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
③ (X: fleXible)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
④ (T: Timely)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업

○ 또한, 추가세수가 재원인 만큼 성장의 과실이 특정 세대·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【 ③ 미래대응기금 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입니다. 】

□ 미래대응기금 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, 사업수행 부처와 함께 성과목표관리 및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므로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미래대응기금의 사업도 다른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**사업수행 부처의 성과 관리 대상에 포함**됩니다.

- 「202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(’26.4.24 배포)」에 따라 **타부처 수행사업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성과관리대상에 포함**되며, 복권기금 등도 동일합니다.

< (참고)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타부처 성과관리 수행사업 사례 >

부처	프로그램	세부사업	비고
교육부	교육인재지원	대학생첫경력프로젝트	교육부 성과계획서 p.188
농림부	지방주도성장	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	농림부 성과계획서 p.325
중기부	청년종합지원	창업사업화지원 등 4개	중기부 성과계획서 p.108
금융위	성장동력확충	국민성장펀드 등 2개	금융위 성과계획서 p.44

□ 또한 미래대응기금의 사업도 기존 재정사업과 같은 기준에 따라 **통합재정 사업평가**를 받게 되는 등 책임 있게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
【 ④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통제 하에 투명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. 】

□ 미래대응기금은 기금의 성격, 신축적 집행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, 기금 자체 변경 기준을 30%로 설정했습니다.

-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·계정성 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, 사업지출 규모(45.4조원)보다 **재정안정성·건전성 제고**(국채발행 축소 12.5조원, 여유자금 104.4조원)를 위해 활용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기금 자체변경 요건을 **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%**로 설정하였습니다.

- 기금운용계획 변경시에도 **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등 국회 의결 취지**에 반하는 사업을 증액*할 수 없습니다.

*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(...)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.

- 또한 최근 경제·사회 상황 급변,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**탄력적 대응 필요성**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.

□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다른 기금에 비해 보다 강화된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김정애 (044-214-2310) 서기관 하치승 (hcs017@korea.kr)
	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김완수 (044-214-3210) 서기관 조문경 (keepangel88@korea.kr)
	재정성과제도팀	책임자	팀 장 이승도 (044-214-3350)
	미래전략기획실 미래대응기금추진단	책임자 담당자	단 장 박성훈 (044-214-2360) 사무관 박성준 (bbakko0@korea.kr)

